

國家論의 概要(續)

鮮于

(一) 國體의 種類

要컨디 國體와 政體를 區別호는 時는 國體는 「아리스돌」氏의 謂호는 바 三種에 限호를 可得호지니 君主制, 貴族制, 民主制가 卽 是라. 故로 主權의 所在는 此外에 不在호므로 思호노니 僭主制, 寡頭制, 極端된 民主制와 如호는 政體의 區別이오, 國體의 區別은 아니며 又 混合제도 國體의 區別은 아니요, 政體의 區別에 不過호다 云호노니 何故오, 主權은 其 本質을 分割키 不可호고 又 混合키도 不可호니 若 君主의 主權과 貴族의 主權을 混合호면 其 一方은 自然消滅호를 可得호지며 貴族의 主權과 人民의 主權을 混合호는 境遇에도 亦然호지로드. 但 主權을 所有호는 者는 各自 其 主權을 行使호기 可得호는 아니라 又 他物로서 其 行使의 任務케 호지나 然이나 主權者가 解任의 全權을 有호는 以上은 主權行使의 權力을 幾多의 人에 分割호도 念慮가 無호니 是 國家와 國家된 政府를 區別호는 必要가 有호는 所以로 主權은 他에 分割키는 不可호나 然이나 其 活動호는 當호야 行使의 權을 種種의 機關에 管轄호는 無妨호는 故로 主權은 分割키 勿호지라도 政權은 自由로 分割호를 可得호지니라.

「아리스돌」氏의 政體 三種說은 國體 三種說로 尙今도 政治學의 原則이 된다. 可謂호지로드 但 近世는 貴族國體가 殆히 消滅호야 其 類例가 無호고 實際의 國體는 君主制와 民主制의 二者에 止호는 故로 國體 三種說은 現代의 事實에는 符合치 아니호고 且 主權者의 人數로 國體를 區別호는 稍稍淺薄의 嫌을 免키 難호도다. 然이나 近世最初의 政治學者 「마기아벨」氏는 國體 君主制와 共和制의 二者로 分호는 最히 現時代事實에 適合호고 最히 近世에 行호는 國體의 區別이라 可謂호지로드. 又 此에 關호야 近世의 論理는 獨逸學者 옐넥크의 解說로써 最히 其 要領을 得호는 者라호노니 卽 氏는 國體를 君主制 又 共和制의 二種으로 分호고 其 基本된 바는 主權者人數如何에 不在호고 國家를 成立호는 志意如何에 在호다 云호는 故로 此 標準에 依호면 國家의 形體는 二種의 外에 分類호는 不可호니 今 法理 上으로 立論호면 志意는 唯

二種뿐이니 一은 純然한 自然人(個人)의 意志오, 一은 法人(合法的 團體)의 意志라 故로 國家의 意志도 或은 自然人的 性格 中에 在하고 或은 法人의 中에 存在하니 반다시 此 二者 中에 其 一에 居홀지니 前者에 存한 境遇에는 君主制오, 後者에 存한 境遇에는 共和制라 如此히 國體를 君主制 及 共和制의 二種으로 此를 說明할 時는 前述함이 最히 簡明하고 且 「아리스토텔」氏의 解釋도 深遠하다 可謂홀지로다. 但 共和制의 國體는 반다시 貴族共和와 民主共和制의 二種으로 分함을 可得하는 故로 實際에는 古代의 說과 大差함이 無하나 然이나 理論만 아니오, 又 近時의 歷史的 事實에 徵하야 國體 二種說은 舊說에 優하다 可謂홀지로다. 然이나 愛情은 家族에 根源이오, 信仰은 教會에 基礎됨과 如히 意志는 卽 國家의 本質이라 國家가 根本적으로 要求하는 바 人民의 服從이오, 國家의 本性은 其 意志를 強行함에 在한 故로 國家에서는 最初부터 其 意志를 施行하기 不能하면 是는 旣히 無政府의 狀態에 陷한지라 然則 國家는 人民의 組織됨과 同時에 特히 人民意志의 組織이라 하나니 此를 別言하면 所謂 公共的 意志의 組織이라 故로 意志가 만일 個人의 中에 組織되야 獨立固有의 最高權된 境遇면 此를 卽 君主制라 하고 若此와 反하야 其 意志가 社會의 一 階級 又는 全 階級의 中에 組織한 合議的 主權된 境遇면 此를 卽 共和制라하고 又는 一 階級의 意志가 만일 多數決 或은 總一致로부터 獨立固有의 最高權된 境遇면 此 卽 貴主共和制오, 全人民의 意志가 直接 又 間接(代議的으로 獨立固有의 最高權된 境遇면 此를 卽 民主共和制라 云하는 故로 君主制 及 共和制는 國體의 區別하는 根本的 分類오, 貴族制 及 民主制는 共和制에 屬한 副分類라.